

“차는 마신다. 그러나 차는 모른다.”
지난해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한 김현주(28·경기도 화성시)씨. 막연히 ‘물에 좋다’는 이유로 차를 마시고는 있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차에 대한 궁금증은 더해만 갔다. 하지만 인터넷을 뒤져도 속 시원한 답은 찾을 수 없고, 서점에 가 봐도 김씨 같은 초보 차인들을 위한 책은 많지 않다. 차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06년 신입생을 모집하는 차 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각 대학이나 단체에 개설된 차 학과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차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한서대 생활과학대학원 차학전공 학생들이 차 품평교육을 받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새해엔 차 공부 제대로 해볼까?

▶ 기초부터 튼튼히, 학부과정

학부과정에 차 학과를 개설한 대학으로는 부산여대와 원광디지털대 그리고 올해 처음 문을 여는 서원대가 있다.
2003년 학부 최초로 차 학과를 개설한 부산여대 차문화복지학과는 차문화를 현대의 복지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 정시모집의 인터넷 원서접수는 12월 24~29일, 장구 원서접수는 26~30일까지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2006년 1월 9일 예정. (051)850-3204
차 개발과 차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2006년 첫 신입생으로 모집하는 서원대 생명산업학부 차학과는 중국의 차 전문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해 현지에서 중국어와 제다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12월 2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정원은 20명. (043)299-8114



기초에서 전문가 과정까지 교육 프로그램 다양 원광디지털대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주부 적합 정규대학 부담스럽다면 문화강좌 이용해 볼만

과정의 문을 두드려보자. 현재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성균관대 성신여대 한서대 원광대 목포대 등 모두 5곳. 박사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광대에만 개설돼 있다.
석사과정은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2005년 2월 취득예정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에 따라 공무원·정규직 직원·군경·성직자 등에 대한 학비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예절다도학과는 12월 10일 면접을 실시하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석·박사 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예문화와다도학과는 2006년 6월 후기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063)850-5342-3

한서대 생활과학대학원 건강증진학과 차학전공은 12월 1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입학원서는 대학원 교과과목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산업체·연구소 임직원, 정규직 직원, 군경 등에게는 등록금 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041)660-1151-3
한편 목포대 대학원에 개설된 국제차문화학 협동과정(061-450-2902)과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과(02-920-7066)는 입학 전형이 마감됐으므로 추기모집 등의 기회를 노려볼만 하다.

▶ 즐거운 차 공부, 문화강좌

정규 대학·대학원이 부담스럽다면 각 차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커리큘럼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을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차 예절에 관심 있는 초보 차인이라면 명원문화재단이 운현궁에서 진행하는 1학기 과정의 전통다례교실과 한국차문화협회가 창경궁에서 개최하는 전통 차예절 체험교육을 권한다. 두 강좌 모두 차 예절의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차 공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차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 도전해보자.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홍)는 전국 180개의 단위 차회에서 기초 다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회 홈페이지(teaunion.or.kr)에서 개설된 차회를 검색한 후 가입할 수 있다. 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는 1년 과정의 한국다도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학원서는 2006년 1월 중으로 접수 가능하다. (02)734-5866.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의 명원차문화원에서는 입문·고급·사범 과정을 각각 1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명원다도대학원에서는 2학기로 이뤄진 교수다인과정과 3학기로 이뤄진 최고명인과정을 통해 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서울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 다례도 전수하고 있다. (02)730-7191

인천서 무형문화재 제11호인 규방다례 기능보유자인 이규례 이사장이 운영하는 **한국차문화협회**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의 각 지방에서 차문화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과정으로는 차생활 예절 지도사범 교육(2년)과 한국차문화대학원(1년)도 수강 가능하다. (02)701-0475

다도포교사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동산불교대학**(www.dongsanbud.net)의 불교다도학과에서는 3년 과정으로 차문화사와 제다학, 한다례, 사찰다도법, 차수행법 등을 배울 수 있다. (02)732-1206

이 밖에도 **한국차문화포럼**이 주관하는 한국차문화 지도자 과정은 내년 6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북촌 문향재에서, 유진길 교수의 다도고전 강좌는 매주 금요일 서울 가회동 교육원에서 각각 열린다.

한편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원한다면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의 연구생 과정을 추천한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전통 차문화를 이어갈 47기 연구생을 2006년 1월 중으로 모집한다. 4년제 대학 졸업자로 35세 이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 전형과 한문·논술 등 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엄격한 도제식 수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의 교육은 기초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 등 총 5년간의 연수과정을 거쳐게 된다. 수강료는 무료. (02)504-6162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선시대



총독부 가등관각 신라·고려차 문헌 조사 점패방지진 차 전래 월간 <조선>에 발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도교육은 인천여학교가 처음이었으니, 일인 다도교사를 데려와 가르쳤다. 한편으로는 조선의 차에 관한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힘을 쏟기 시작했다. 총독부 시정기념관에 근무한 가등관각(加藤灌)은 신라와 고려의 차 문헌을 조사했고 점패방지진(貞房之進)은 문헌에 나타난 우리 차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우리 차의 전래에 관해서 월간 <조선>에 발표하기도 했다. 도엽군산(稻葉君山)이나 삼위삼(森爲三) 등은 사원차(寺院茶)에 관해 조사 연구했다.

중국에 차에 관한 연구를 점차 증대하고 차의 산업화에 힘을 쏟았다.

- ① 인천 여학교에 진전(津田)이라는 일인 차 교사가 부임했다.
- ② 가등관각은 신라와 고려의 차 문헌을 조사해 '조선의 차의 문헌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발표했다.
- ③ 다산초당 인근의 만덕사(萬德寺) 주지가 작설차를 만들었다.
- ④ 점패방지진은 우리 문헌에 나타난 차가 가진 예술성을 중심으로 '조선의 차에 대하여'를 발표하고 차의 전래에 관해서도 썼다.
- ⑤ 도엽군산은 개성의 고본에서 전차(禪茶)가 출토된 것이나 <삼국사기>에 근거한 사적들과 사원차가 쇠퇴한 것 등을 중심으로 '조선의 사원차'를 발표했다.
- ⑥ 삼위삼은 보림사 백암사 회암사 송광사 선암사 등의 사찰에서

었던 차와 전남 일대의 야생차에 관해 '조선의 사찰과 식물'을 썼다.

⑦ 장흥군 유치면의 이석준(李石俊)씨가 만든 차가 둔차인데, 속, 오가피 등을 섞어 만든 작설차로 써서 찌고 돈 모양으로 박아서 50개 정도로 꿰어 포장한 것이다. 중미만삼(中尾萬三)은 이 둔차와 함께 고려의 차술가락도 가지고 있었다.

⑧ 정원사십삼(藏源四十三)은 우리 차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우리 차의 전래에 관해서 월간 <조선>에 발표하기도 했다.

⑨ <청사>는 조이손(趙爾巽) 등이 찬술한 책으로 그 안에 청의 역대 차 관계일이 실려 있다.

⑩ 상해에 처음으로 중국다업검정소를 설치했다.

⑪ 행정원에서 농촌부흥위원회를 결성해 벌 밀 면화 작조 차의 품종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⑫ 정천수(程天綬) 등이 편찬하여 출판한 책인데 15장으로 된 방대한 내용이다. 차의 번식, 기후와 토양, 비료 관리, 병충해, 육종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⑬ 허승호(1874~1946): <흥현지(歙縣志)> 30권과 <흥현담(歙縣閑談)> 30권을 편찬해 이 지방의 명차(名茶)에 관한 얘기를 썼다.

⑭ 미국에서 출판된 종합적 도서로 1949년 오강남이 재판매 중국판을 출간했다.

⑮ 유종열(柳宗悅)은 일본 다도와 차인들의 잘못된 점을 말했다. 나중에 <차의 개혁>으로 출간된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한국	중국	일본
1926 인천 여학교 다도교육 ① 조선의 차 문헌에 대하여 ② ③ 만덕사 작설차 ③ 1932 조선의 차에 대하여 ④ 조선의 사원차 ⑤ 조선의 사찰과 식물 ⑥ 1933 장흥의 둔차 ⑦ 1934 구례의 다수 식재 ⑧	1927 <청사(淸史稿)> ⑨ 1931 중국다업검정소 ⑩ 1932 농촌부흥위원회 ⑪ 1933 <종다법(種茶法)> ⑫ ⑬ 허승호(許承浩)의 활동 ⑬ 정대 1935 <다업전서> ⑭	1931 유종열의 주장 ⑮ 1932 <다도(茶道)> 창간 강호시대

●표는 약(Abbot)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어낸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 상권 10,000원, 하권 13,000원
월간 '다도', 정기 구독자에게는 상·하권 20,000원에 드립니다.

상권

하권

드디어 발간 되어 판매 중입니다.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식

스님용
침선방식

참선방식

절방식

건강
좌욕방식

지동차
방식

법회 및 기도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 토르말린, 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호능

- 정사간 사용에도 가장 편안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정사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안이만 개서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회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화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기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많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음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침선방식: 180,000원
- 참선방식: 145,000원
- 절방식: 75,000원
- 건강좌욕방식: 94,000 ~ 98,000원
- 지동차방식: 58,000/88,000원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www.heatway.co.kr
- 제 조 원: (주)에간하이텍
- 계좌번호: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에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